

Chapter 1. 호세아 3.

❖ 본문: 호세아 4장 1절 -19절

➤ 들어가기

호세아서의 주제는 ‘사랑의 언약을 끝까지 나타내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’ 이라고 했습니다.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호세아 1-3 장의 내용을 보면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보면서,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. 특별히 3장에서 호세아는 자신을 떠나 음란한 길로 행하던 고멜을 위해 대신 돈을 지불하고, 다시 데려와 인격적인 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우리는 이런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

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내용은 호세아서의 본문으로써, 이와 같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? 저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,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. 4장은 그 첫 부분으로,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

1.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의 상태 (1-3절)

1)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을 하신다고 선언했나요? (1a절)

- ‘논쟁하신다!’ => 히/원 = ‘리브’ = ‘책임을 물어 다투다, 따지다, 고소한다’ 는 뜻.
- 특별히 이 단어는 법정 용어임!!
 - 곧 법정에서 마치 검사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기 전, 법에 따라 피고인의 죄를 따져 묻고 고소하듯,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전,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근거해 저들의 죄를 따져 물으시겠다는 것!!
- 그럼 참고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따져 물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?
 - 단순히 심판과 징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,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시기 위함!!

2) 그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고소(판단)은 어떠했나요? (1b-2절)

-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3가지가 없다고 지적하심!
 - ①. 진실이 없음!
 - ‘진실’의 히/원 = ‘에메드’ 곧 ‘진리’라는 뜻인데, 이는 옳은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, 행동으로 그 옳은 것이 실천되는 것까지를 포함!
 - ②. 인애가 없음!
 - ‘인애’의 히/원 = ‘헤세드’로, 언약에 기초해 ‘책임을 지는 사랑,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, 목숨을 건 사랑’을 의미! +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미하기도 함!
 - ③.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!
 - ‘지식’의 히/원 = ‘다아트’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체험적인 지식!!

-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교제를 통해 얻어진 지식이 없다는 것!

- 이로 인해 당시 이스라엘에는 오직 ‘저주와 속임, 살인과 도둑질, 간음, 포악, 피가 피를 뒤따르는 복수’만 있다고 지적!

3) 그런데 이때 3 절 주목하면, 하나님은 이와 같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무엇이 슬퍼하고 고통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나요?

- ‘_____이 슬퍼하며,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, 공중에 나는 새, 바다의 고기가 다 쇠잔할 것’
-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했는데 땅이 슬퍼하고 자연이 저주받게 될까?
-
-

2.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(4-10 절)

1)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,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부터 책망하셨습니다. (4-5 절)

-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서로를 비난할 생각을 하지 말고 회개할 생각부터 하라는 것!
- 이때 특별히 5 절에서 하나님은 ‘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’고 하심!
- 이 구절에 대해서는 다음 3 가지 해석들을 교회가 따르고 있음!
 - ①. 제사장들의 타락상을 지적한 것으로 보는 견해 (RSV, CEV. 현대인의 성경),
 - ②.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똑같이 타락했다고 보는 견해 (G.Smith - 공동번역)
 - ③. 백성들이 제사장을 대항하여 싸우고 원망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 (Keil, Hengstenberg, 개역개정, 개역한글, 새번역, KJV. NIV, etc.)

⇒ 어떤 견해를 취하든 본 구절은 제사장들이 불법과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지적하는 것!

- 따라서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밤낮으로 넘어질 것이요, 네 어머니를 멸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음! (5 절)
 - ‘넘어질 것’이란 말은 ‘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똑바로 걷지 못하는 것’을 말함!
 - ‘네 어머니’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말.

- 그런데 참고로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 대부분이 다 거짓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음! Why?

⇒ 여로보암 1 세대 단과 벧엘에 금송아지를 세우고, 여로보암 맘대로 ‘일반 백성’을 제사장을 세우고 모든 일들을 행해왔기 때문!! (이때 대부분의 진실된 제사장들은 다 남쪽으로 이주하였음!) 따라서 애초부터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똑바로 걷지 못한 제사장들이라 볼 수 있음!.

2)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린 것이 이스라엘 패망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시면서, 제사장들의 죄부터 책망하셨습니다. (6-10 절)

①. 우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지적하셨음! (6a)

- 곧 단순히 성경적인/율법적인 지식만이 아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체험적으로 쌓여가는 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것!

⇒ 참고로 James Packer 교수는 그의 책 'Knowing God'에서 'Knowing God'과 'Knowing about God'을 구분했음!

- 'Knowing God'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, '예배, 찬송, 기도, 전도, 봉사, 헌신'등으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이루며 사는 것!

- 'Knowing about God'은 하나님에 관해 성경적/율법적 지식만을 채워가는 것!

⇒ 따라서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'진실한 교제'를 통해, 날마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면서,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고자 힘쓰는 것을 의미!

②.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고, 이는 제사장들 스스로가 먼저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임을 지적하심! (6b-10 절)

⇒ 이때 특별히 하나님은 당시 제사장들이 '백성들의 속죄제물을 먹고,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었다'고 지적!

- 참고로 백성들이 드린 속죄제물의 일부는 제사장들의 생활을 유지하는 일에 사용됨.

- 따라서 당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한 것이 아니라, 그저 자신들의 배를 더 불리고자는 목적으로 백성들에게 속죄 제물을 더 많이 바치게만 했다는 것!

⇒ 그러므로 하나님은, 이와 같은 제사장들의 잘못부터 책망하시면서, 제사장들의 자리를 먼저 빼앗고, 그 자녀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음!

3.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(11-14 절)

1)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'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'에 무엇을 빼앗겼다고 지적하셨나요? (11 절) _____

-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구하는 지성, 감정, 의지의 인격을 담고 있는데, 그 마음을 음행과 술취함, 그 외 현대 사회의 여러 유혹들에 빼앗겨 버리면,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점점 더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!
- 따라서 주님은 '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'고 가르치신 것!

2) 그럼 이처럼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나요? (12-14 절)

①. '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...', (12 절)

- 참고로 '막대기가 고했다'는 말은 막대기를 사용한 미신적인 점치는 행위를 의미함.

②.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그늘을 즐기며, ‘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,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함’ (13 절)

-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 그늘을 즐겼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범죄가 자발적이었고, 쾌락적이었음을 상징!

③.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이 음행하고 간음을 행함! (14 절)

- 참고로 ‘음행과 간음’은 단순히 육체적 음행과 간음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, 영적인 간음 곧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긴 것을 의미함.

3)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던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.

- 15 절, ‘…,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.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와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’
 - ⇒ 우선 길갈과 벳아웬은 금송아지가 세워진 길갈과 벳엘을 의미.
 - 그런데 특별히 ‘벳엘’=‘하나님의 집’이 지금은 ‘벳아웬’= ‘죄악의 집’으로 바뀜!!
 - ⇒ 유다의 중심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!
 - 따라서 표면적으로 유다가 하나님만을 모시고 사는 나라인 것처럼, 영적으로도 북이스라엘처럼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‘죄의 집, 죄의 나라’가 되지 말라는 경고!!
 - ⇒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성전된 그리스도인으로써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버리고,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!

4. 북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지적하시며 저들이 수치를 당할 것을 예언하신 하나님 (16-19 절)

1) 하나님은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처럼 완강하다고 책망하셨나요? _____처럼 완강함!

- 따라서 하나님은 저들을 더 이상 어린 양처럼 대하며 넓은 들에서 먹이지 않겠다고 선언!
- 그런데 참고로 16 절을 모든 한국어 성경이 ‘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?’ 란 의문문으로 번역했지만, 맛소라 원문은 평서문으로 기록됨!!
 - 의문문 형식으로 번역한 성경들: 한국어 성경들, NIV, RSV, NASB, NEB, etc. (NASB: ‘…, Can the LORD now pasture them Like a lamb in a large field?’)
 - 평서문 형식으로 번역한 성경들: KJV, CEV, etc. (KJV: ‘…, now the LORD will feed them as a lamb in a large place.’)

⇒ 따라서 이 구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뉨.

- ①. 의문문으로 해석할 경우
 - 이스라엘의 완강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더 이상 넓은 초장에서 어린 양을 먹이듯이 먹이지 않을 것!
 - 여기서의 넓은 초장은 하나님의 풍요와 축복을 상징하는 것!!

②. 평서문으로 해석할 경우: (Calvin, Keil, Given).

- 이스라엘을 길 잃은 어린양처럼 넓은 들에 버려두시고 더 이상 돌보시지 않을 것!
- 이 때에 '넓은 들'은 사나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광야가 됨!!

2) 이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지파인 '에브라임'을 예로 드시며, 저들은 우상을 숭배하고, 술과 음행을 범죄하였다고 책망하였습니다. (18-19 절)

- 그로 인해 하나님은 '바람이 그 날개로 저들을 싣다'고 말씀하시며,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!
 - '바람'의 히/원= '루아흐'로 강한 파괴력을 지닌 '태풍'이나 '폭풍'을 상징.
 - '싸다'의 히/원= '차라르'로 '뒤편', '뒤통수'의 뜻!=> 곧 강한 바람에 묶여 날라가 사라지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!!
- 이는 곧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한 북이스라엘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될 것을 예언하신 것이고, 이 예언은 앗수르가 사마리아를 공격해 무너뜨린 뒤 모든 사마리아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며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성취되었음!

❖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롭게 깨달거나 묵상하게 된 내용이 있다면?

❖ 중보기도나눔